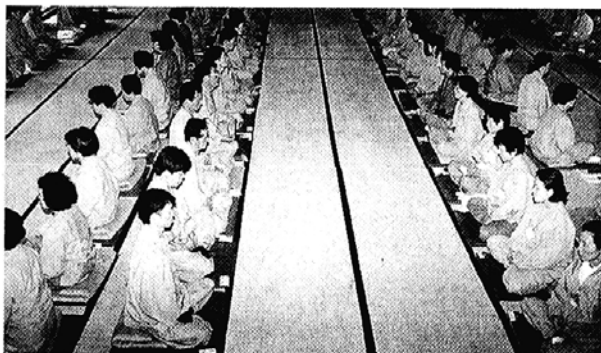


생활속의 문제점 불교적 해법 찾는 논문 잇달아 발표

실업자가 양산되는 요즘의 엄허가는 노동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오래전부터 논란이 돼 온 출가자의 식육(食肉) 문제, 심장질환사(死)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선 수련이 심장질환 방지에 탁월한 효과를 준다는 사례 등 현대의 민감한 문제를 불교적 관점에서 다양하게 해석한 논문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불교학보> 제35집, <선무학술논집> 제9집 등은 교학위주의 논문계재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실생활적인 관심사를 불교적 관점에서 다른 논문을 쓰는 등 논문영역의 폭을 확대시키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편집자 주)



△좌선을 통한 명상과 호흡조절은 '자율신경의 균형을 유도하며 심장질환을 치료하는데 효과를 준다'는 논문이 '선무학술논집' 제9집에 발표됐다. 사진은 좌선에 몰두하고 있는 불자들의 모습.

“인간존엄성 차원 노동의 의미 재인식”

박경준교수 '불교의 노동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권기종)이 펴낸 <불교학보> 제35집에서 박경준 교수(동국대 불교학부)는 '불교의 노동관 소고(小考)'를 통해 노동에 대한 불교의 기본입장을 고찰하며 미래지향적 노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박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국제금융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대의 사회문제인 실업문제는 곧 '노동의 위기'로 부를 수 있다"며 "광범위한 사회보장 정책으로 실업문제를 어느정도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무엇보다도 노동의 의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교수는 불교 특유의 패러다임인 연기법과 사성제의 관점에서 노동의 문제를 해석했다. 연기법의 유전문(流轉門: 괴로움이 성립하게 되는 과정)과 환멸문(還滅門: 괴로움이 소멸하는 과정)을 노동의 의미에 대입하여 '유전문의 노동'과 '환멸문의 노동'으로 구분한 것으로, 고통을 끝없이 재생산하는 성립의 노동과 괴로움이 없는 열반을 지향하는 성립의 노동으로 분류한 것. 박교수는 "노동은 단순한 상품가치가 아니라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하는 존엄한 것인 만큼 노동의 방식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창의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과감히 바뀌어야 한다"며 "유전문의 노동에 머물고 있는 자신의 노동을 환멸문의 노동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동자들은 노동을 자아실현을 위한 신성한 활동으로 생각하며 자발적이고도 창조적으로 일할 것"을 강조했다.

“육식 않는 까닭은 승가 공동체의 윤리”

신성현씨 '불식육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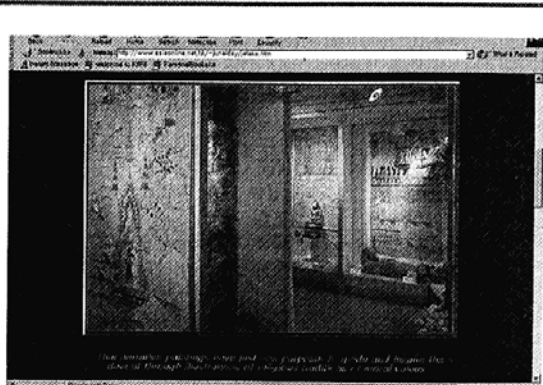
<불교학보> 제 35집에서 신성현 씨(동국대 불교학 강사)는 '불식육계(不食肉戒) 일고(一考)'를 통해 지극도 논란이 되고 있는 '출가자의 식육'에 대해 고찰하며 "근본을 잡는다는 고기를 먹는 것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초기불교는 물론 부파불교에 이르기까지 허용됐던 고기 먹는 문제가 대승불교에 이르러 새롭게 금지되는 이유에 대해 신씨는 "대승불교의 '불식육'은 어느때 갑자기 대승문제가 아니라 '승가 공동체의 윤리'에 의해 서서히 진행되어 온 의식이 <열반경> <범망경> <보살지경> 등 대승경전을 통하여 반영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에서 육식에 대한 금지가 강하게 남아 있음은 <사분류>의 영향이 보다는 <범망경> 등 대승경전의 영향이 그만큼 크게 미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처님 당시에는 고기 먹는 것을 허용했으나 공동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써 점차 변화해왔다는 것. 견(見)·문(聞)·의(疑) 3종이 청정한 것 이외는 먹어서는 안된다는 것. 사람의 고기, 개고기 등을 먹어서는 안된다는 식의 제한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다가 다시 영양이 있는 음식, 즉 미식(美食)으로 고기를 찾아내려는 것을 금하는 색미식계(索美食戒)가 나타났으며, 대승불교에서부터 비로소 고기를 무조건 먹어서는 안된다는 방식으로 표현됐다는 주장이다.

“참선의 호흡조절 심장질환 치료 효과”

박옥규교수 '선과 심장'



국제선무학회(회장 김철)의 <선무학술논집> 제9집에서는 박옥규 교수(원광대 의과대)가 '선과 심장'을 통해 "선 수련이 심장질환을 치료하는데 효과를 준다"고 주장했다. 박교수는 "좌선의 생리적 변화로는 산소 소비의 감소, 심박수와 호흡수의 감소, 뇌파의 변화 등이 나타난다"며 "선수련은 자율신경의 교감과 부교감의 균형을 맞춰줌으로써 심장을 통해 혈액 순환, 고혈압 등으로부터 보호해준다"고 설명했다. 즉 좌선은 산소(O₂)섭취, 이산화탄소(CO₂) 생성, 분식환기량, 동맥혈의 분비, 맥박수와 호흡수의 감소와 혈압의 하강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는 교감신경계 작용의 저하 상태와 일치한다는 것. 박교수는 "참선을 하면 불편했던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둡고 우울한 마음이 밝아지게 되는데 이러한 마음의 변화가 교감신경계의 자극을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교수는 호흡조절(調息)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호흡조절은 자율신경의 균형 조절을 통해 심장 질환 예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박교수는 "심장기능 저하로 나타나는 '육혈성 심부전증' 환자에게 한 달간 요가식 호흡훈련을 시킨 결과 산소포화도가 증가와 산소(O₂) 소비량 증가, 호흡근련의 자가중상이 감소했다"며 "선 수련으로 마음이 편안하게 되고 호흡조절로 호흡을 깊이 누리게 되면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처님 사이버 기행 상좌부 불교

부처님 생애 그린 동화 삽화 불만

상좌부불교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사이트를 찾아가 보자. 인터넷 검색 사이트 '야후'나 '인포식'에서 테라바다(Theravada)를 검색어로 입력하면, '상좌부불교'와 '부처님 이야기'라는 사이트를 소개받을 수 있다. △상좌부불교(Theravada)=하 이테르코 구현된 불교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불자 네티즌이 한번쯤 방문해 정신과 기술 문명의 충아를 마음껏 살펴볼 수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부처님 생애·상좌부의 대장경 등의 정보 이외에도 사회문제에 대한 불교시론·불서(佛書)·불교뉴스·전자도사관 등의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탄생·고행·성도·전법 등으로 구분해 제공된 '부처님 생애' 서비스에서는 '나란다스님'의 <부처님과 그의 가르침>에서 일부를 발췌해 제공하고 있다. 탄생과 성도에는 동화적인 삽화도 함께 보여준다. '대장경' 서비스에서는 한국 불교에서 낯설지만 아난다존자가 경·율·론 삼장경을 결집해 만든 경전을 상좌부불교 대표적인 경전으로 소개하고 30여 종의 경전에 대해 주석과 전산본을 각각 열람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사성제, 팔정도, 윤회, 열반 등의 불교용어도 풀이해 주고 있다. 이외에도 담마나다스님의 <불교의 신념>에서 일부를 인용해 동시대 현대사회에서 빈번하게 질문되는 세계 기원·원죄 등에 대해 불교적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또 불교사·불교사학·불교철학 등 여러 장면에 대한 논문, 예시, 서적 등을 알파벳 순서로 제공하고 있다. △부처님 이야기(Tales of Buddha)=부처님 전생담이 표현된 그림을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다. 태국에서 전래된 '자타카' 즉, 부처님 전생담이 형상화 된 200여점의 그림을 모아놓고 불자 네티즌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다. 이곳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림 대부분은 태국의 라타나코신 시대에 그려진 고대 불교미술 작품이다. 이 중에서 태국의 종교·예술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그림을 엄선해 '마왕의 유혹을 뿌리치는 부처님' '석가모니의 탄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 사이트의 웹마스터(webmaster)인 알데이는 "태국의 고대미술은 영적인 교감을 통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종교적 전통과 도덕적 가치를 현신하게 한다"며 태국의 불교미술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광범위한 구도 속에서 마스크를 쓴 듯한 인물이 등장하는 태국의 불교미술은 현란한 기교의 그림과 비교해 거칠고 서늘하게 보이지만 한편으로 인간 본래의 감성과 자유를 표현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네티즌이 이 사이트를 방문한다면 태국 불교미술이 지닌 고귀함과 미련함 등의 불교용어도 풀이해 주고 있다. 이외에도 담마나다스님의 <불교의 신념>에서 일부를 인용해 동시대 현대사회에서 빈번하게 질문되는 세계 기원·원죄 등에 대해 불교적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또 불교사·불교사학·불교철학 등 여러 장면에 대한 논문, 예시, 서적 등을 알파벳 순서로 제공하고 있다. (gobaou@buddhafia.com)

http://www.inet.co.th/Cyberclub/bow
http://www3.asiaonline.net/users/junaday/jataka-x.html

“佛身の 이설 화쟁논리로 설명”

김상현교수 '원효의 불신에 대한 이해'

"원효스님은 불신(佛身)에 대한 경론(經論)의 다양한 해석을 그의 독특한 화쟁논리로써 화회(和會)하여 설명했다." 김상현 교수가 <기신론해동소(起信論海東疏)> 연구의 일환으로 논의한 원효의 불신에 대한 연구논문이 발표됐다. <한국사상학> 제11집에서 김상현 교수(동국대)는 '원효의 불신에 대한 이해'를 통해 <화엄경소> <공광명경소> 등에서 불신에 관한 자료를 새롭게 찾아내 원효스님의 불신관을 고찰했다. 이번 논문은 원효스님이 불신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기존의 <열반종요> <무량수경종소> 등에 덧붙여 밝힌 것으로, 김교수는 "원효스님은 불신에 관한 각 이설(異說)을 화쟁논리로써 설명하며 불신이 나타내는 유위(有爲)의 상(相)에 주목하기도 했는데, 이는 법신을 토대로 전개되는 보신(報身)과 화신(化身)의 역동적인 작용을 중시

한 때문"이라고 밝혔다. 법신은 체(體)의 본질로서 곧 무위(無爲)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딱딱하게 굳고 굳어져 아무런 동작도 못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 김교수는 "삼신(三身)의 명칭은 여러 경문에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원효스님은 '화신의 모든 양상은 응신의 지혜와 자비의 나타남이며, 응신의 모든 덕은 법신의 진성(眞性)과 덕이 나타난 것이며, 법신의 경지(境智)는 본래 담연(湛然)한 것'이라며 삼신을 유기적인 관계로 파악하여 설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기자

“육입처와 육근 불교수행의 토대”

이종표교수 주장

한국종교학회 각 종교분과발 발표회에는 처음 시도된 불교분과 발표회가 13일 연세대 제2 인문관에서 열렸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지금까지 별개의 것으로 다뤄진 육입처(六入處)와 육근(六根)에 대해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육입처와 육근은 동일한가'에서 이종표 교수(전남대 철학과)는 "불교의 교리와 수행은 육입처와 육근을 토대로 이루어져 있다"며 "이 두 개념은 지금까지 '각각의 관'을

뜻하는 동일한 의미로 잘못 이해됨으로써 밀접한 연관을 갖는 불교의 이론과 실천이 별개의 분야처럼 다뤄지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보고, 듣고, 만지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육근'이고, 이러한 삶에서 무아(無我)의 진리를 모르고 무명(無明)에서 욕망을 일으키는 허망한 자의식이 '육입처'라고 강조하며 "육입처와 육근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근본불교의 개념과 교리체계에 대한 새로운 해석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근본불교와 대승불교의 사상적 연관관계의 이해에도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은 기자

전강의 신비! 옥

정신적으로도, 병고에도 너무나 좋다는 옥을 같이 사용하세요!

보석'인가? '영험한 치료제'인가?

치녀가 옥을 걸면 신비한 미인이 되고 중년여성엔 피부가 고와 지고 건강해진다. 양귀비는 전옥을 노상 입에 물고 살았다고 한다. 옥을 경락이나 피부에 접촉하거나 몸에 지니고 있으면 난치병에 이롭고 옥판위에 손바닥 발바닥을 마찰하면 노인도 회춘한다. (玉室養命術,에서)

옥도자기 타일위에서 원리를 기본 결과 수습 쥐의 정자가 40% 증가했다(한국식품개발연구원 한창규박사팀)

심장병, 당뇨, 뇌졸중(중풍), 동맥경화 등의 순환기장애에는 90% 이상의 효과, 제일 못하다는 신경통에도 60%의 확률입니다. 50%의 효과면 신약이라고들 합니다. (한방의 세계적인 권위인 목종중의평면 임원보고서)

계 옥목걸이, 반지, 팔찌, 108염주, 다주, 참선옥목걸이, 원자옥 목걸이, 목침구류, 목대, 무릎대, 옥비누와 기초화장품, 목치진외 옥도자기

신 옥목 108염주 (10mm알, W60,000) 목걸이 경우 옥목 혼합제 제 품, 무게는 것을 싫어하는분 적합, 건강보전 기경팔뚝 通氣通. 품 마음자리를 잘 볼 수 있고, 탐진치의 擘心을 줄일 수 있어 좋다.

* 옥에는 기(氣)와 목(木)이 만나오는 벌옥이 있습니다. "옥을 했는 데 나는 왜 아무런 반응이 없지?" 하면 그 옥은 이미 기옥이 아닌 벌옥을 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셔서 체크해 보세요.

서울을지로 玉山家 (02)777-0105 (벽옥옥)

심야전력기기

IMF·고유가시대 기름값 걱정해소방법

■ 심야전력기기란: 「한국전력공사」에서 02시간 동안 남아도는 전기를 일반전기의 약 1/4-1/10 수준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전기를 일반 기기를 보일러보다 약 1/3-1/4 수준의 난방비로 따뜻하고 쾌적한 24시간 난방을 할 수 있는 전기 보일러, 온돌, 온수기, 온풍기등을 말합니다.

■ 심야전력기기는 목조건물이 많은 사찰의 특성상, 가장 경제적인 난방비로 연료주입, 저장의 불편함이 없고, 화재·폭발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청정난방기기입니다.

겨울철난방비를 70% 이상 절약합니다.

■ 심야전기 보일러: 기존 기름보일러와 교체공사만으로 값싼 심야전기 난방을 할 수 있습니다.

■ 심야전기 온돌: 보일러실이 필요없고, 열손실이 없고, 등퍼의 열려가 없습니다.

■ 심야전기 온수기: 미리 저장된 온수를 사용함으로써 추운 날씨에도 일시에 많은 양의 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심야전기 온풍기: 화재의 위험이 없고 깨끗한 실내 공기를 유지함으로써 마루방앗 난방에 적합합니다.

전국사찰 심야전력기기·전력공사 전문업체

금강산업·금강기전

문의전화 (02)883-7400(4대)
* 영남부: (02)877-6090
* FAX: (02)876-3378

KAIST 신개발 화강실(옥실) 타일바닥 미끄럼 안전 방지제

현황 바닥에 물기만 있으면 한두번씩 미끄러지지 않는 사람이 없을. 미끄러져서 뇌진탕, 식물인간, 팔다리 골절상 등 수많은 사고 발생. 철없이 뛰노는 아이들, 부모님들, 부녀자들은 너무나 위험

* 부모님들께 하도하고 가족들의 안전 필수품

■ 제품의 특징 (98 산업박람회 최우수상품 선정)
- 한국과학 기술원에서 개발하여 98.11월 KBS TV 첨단벤처기업 신발명품으로 "중소기업을 살린다" 프록에 출연, 호과극찬
- 단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 효과(보존기간 5년)

■ 사용방법 (설명서 같이 송부)
- 청소하고 마른후에 그냥 발라주면 됨
- 타일 자체에 흡수됨: 1시간 30분 소요

■ 가격
- 화강실 1개용: ₩18,000 / 2개용: ₩30,000

■ 주문방법 (우송료본사부담)
- 전화로 주문하시면 등기소포로 즉시 우송

■ 대리점, 취급점 모집 (신도분 특별우대)
○공급사적 초기임 ○아파트, 단독, 연립주택, 식당, 옥욕탕등 수요 무제한 ○최고수익 보장(가장 확실한 사업)
○성공명업 전락 책임지움 ○점포없이 가정에서도 가능
○소자본 창업자, 공사퇴직자, 현 점포운영자 (전국 어디나 친질 상담)

* KAIST 신개발 가정 필수품 3종 더 있음.

* 사설, 청년회, 신도회 기금조성 후원회 *
▲공 장: 한국과학기술원 기술혁신센터
▲공급처: (주)대우통상 (대표 김순현)
저는 한마음을 선한 대우지원 신도임
전화 053)567-4034-5 / FAX 053)567-4035

한자(漢字)는 현실입니다.

“불경(佛經)공부, 그 어려움은 오로지 한문 때문에...”

한자 2,000자 강의 편
기본 부수 214자를 중점 강의하였으며 교육부 지정 한자 1,800자에 실용한자 200자를 덧붙여 총 2,000자를 그림과 함께 그 유래와 쓰임새를 알기 쉽게 강의

(비디오테이프 2시간용 20개 · 교재 2권)

한문문법/고사성어 강의 편
한문문법이나 고전 공부에 가장 걸림돌이었던 한문문법을 허자 중심으로 총정리하여 한시, 고전 등의 풍부한 예문과 함께 강의하였으며, 고사성어 80여 문구까지 강의

(비디오테이프 2시간용 3개 · 교재 1권)

●비디오로 한문을 직접 배운다! ●
이러한 선생님의 한문 강의 비디오 교재

문의처: 한영 미디어 (02)516-7500(4대)